

작품 개요

「교향곡 제7번」 '성경' 은 작곡자가 46세 때인 1968년 3월 22일 작곡되어 3월 24일 국립극장에서 열린 <제2회 나운영 교향악 작품발표회>에서 서울시립교향악단, 지휘 나운영에 의해 초연되었다. 이 곡은 각 악장의 표제에 따라 각각의 색채를 지정하여 각 악장마다 조명을 달리하도록 하였고, 특이한 것은 연주자가 주어진 기본 음정의 틀 속에서 템포, 시간, 리듬, 옥타브의 이동 등을 자기 마음대로 연주하도록 한, 유연성 음악, 불확정성 음악을 시도한 것이다.

작품 해설 1

이 곡은 악보상으로 6페이지 분량이다. 7악장으로 되어 있는 이 곡은 각 악장을 연주 할때 주어지는 조명색깔이 있다. 제1악장 <예언>(색깔 없이 밝게), 제2악장 <그리스도의 탄생>(오렌지색), 제3악장 <그리스도의 고난>(구름, 흑청색), 제4악장 <그리스도의 부활>(백색), 제5악장 <그리스도의 승천>(청자, 가지색), 제6악장 <그리스도의 강림>(청색), 제7악장 <그리스도의 재림>(황색)으로 되어 있다. 홀수 악장은 화현으로만 이루어져 있고, 반면 짝수 악장은 화현+단선율로 되어 있다. 화현을 그린 악보는 매 마디마다 온음표가 하나씩 차지하고 있으나 그것의 템포, 박자, 리듬은 연주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, 음높이도 4옥타브 이내에서 마음대로 이동하여 연주할 수 있는데, 고음악기는 최저음을, 저음악기는 최고음을 내는 것이 좋다고 작곡가는 말한다. 반복 횟수조차 연주자의 자유이다. 유연음악의 일종이다.

매 마디마다 연주하는 악기들이 달라지는 음색의 변화를 보여준다. 이는 쇤베르크 식의 음색선율을 생각나게 한다. 하지만 사용된 화현은 쇤베르크의 것에 비해 긴장도가 심하지 않다. 제1악장은 완전5도 $c' - g'$ 에 갖가지 음높이의 단2도를 첨가한다. 제2악장은 단3도 $b' - d'$ 에 갖가지 위치의 장2도를 첨가한다. 뒷부분은 d단조의 선율 하나만 그려져 있으나 남성과 여성이 각각 “아” 와 “흠” 의 발음으로 연주하는 카논이다. (트라이앵글을 같이 치도록 되어 있으나 어떻게 칠 것인지 지시되어 있지 않은데, 이 부분은 연주자들의 자유에 맡겨진 것으로 보인다.) 제3악장은 증4도 $c' - \#b'$ 에 갖가지 위치의 증5도가 첨가된다. 제4악장은 완전4도 $\#b' - b'$ 에 갖가지 위치의 증4도 음정이 첨가된다. 뒤를 따르는 - 간혹 두 음이 동시에 울리는 - e단조의 단선율 노래를 남녀가 함께 “아” 의 발음으로 노래한다 (팀파니와 심벌즈가 같이 연주하도록 되어 있는데, 이것 역시 자유스럽게 연주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). 제5악장은 단2도 $c^b - d$ 에 갖가지 위치의 단3도 음정이 첨가된다. 제6악장은 장2도 $c - d$ 에 갖가지 위치의 단3도 음정이 첨가된다. 그 뒤에 나오는 반응계적 단선율은 포르타멘토가 많이 붙어 있으며, 남녀가 “아” 의 발음으로 연주한다. 제7악장은 장3도 $c - e$ 에 갖가지 위치의 단3도가 붙는다.

作詩
作曲
編曲

No.
1st Mov. (04102)
Cin. Sordino

DB.	Vc.	Vla.	VI.	DB.	Vc.	Vla.	VI.
o	o	o	o	o	o	o	o
o	o	o	o	o	o	o	o
ppp Fl.	ob.	cl.	Fg.	Fl.	ob.	cl.	Fg.
#oo	b ^{oo}	b ^{oo}	#oo	oo	#oo	b ^{oo}	#oo

DB.	Vc.	Vla.	VI.
o	o	o	o
o	o	o	o
Fl.	ob.	cl.	Fg.
b ^{oo}	#oo	oo	b ^{oo}

2nd Mov. (04103)

Fl.	ob.	cl.	Fg.	Fl.	ob.	cl.	Fg.
o	o	o	o	o	o	o	o
mp	Bell	Tp.	Bell	Tp.	Bell	Tp.	Bell
#oo	#oo	oo	oo	#oo	oo	#oo	#oo

Fl.	ob.	cl.	Fg.
o	o	o	o
Bell	Tp.	Bell	Tp.
#oo	oo	#oo	oo

Chorus
Triangle

Time

D.C.